

기고

작은 부주의가 큰 재앙으로
생활 속 화재 예방 실천법

화재는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재난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5년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주의로 인한 주요 화재 사례와 예방법을 살펴보자.
1. 주방에서의 화재
가스레인지 위의 음식을 두고 자리를 비우거나, 과열된 기름이 인화점에 도달해 불이 붙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후드에 쌓인 기름과 먼지가 불씨를 만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조리 중에는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

2.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
담배꽂초를 완전히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또한 침대나 소파에서 흡연하다가 불씨가 침구류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 차량 내에서 흡연 후 담배꽂초를 창밖으로 던질 경우, 건조한 풀밭에 불이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다. 흡연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고, 담배꽂초를 완전히 소각한 후 처리해야 한다.

3. 전기기기 및 배선 과열로 인한 전기화재
주로 멀티탭 과부하, 노후화된 전선의 합선, 전열기구 과열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 전기난로나 히터를 가연성 물질 가까이 두면 화재 위험이 급증한다. 따라서 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멀티탭 사용을 최소화하며, 전열기구 사용 시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건조한 날씨에 논밭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바람을 타고 예상보다 빠르게 불길이 번질 수 있다. 또한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완전히 끄지 않거나, 불꽃놀이 후 잔불을 방치하는 행위도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야외에서 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 조치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철저한 예방과 작은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개인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은원

언젠가부터 인구에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다. '웰-다잉(Well-dying)'이라는 단어 말이다. 굳이 번역하자면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이다. 과연 죽음에도 아름답고 좋은 죽음이 있다는 것일까. 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적절한 웰-다잉 대처법 필요하다

그렇다면 생물학적이거나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망 상태인데도 연명치료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때문에 웰-다잉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각 방면에서 수많은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극력히 반대다. 인위적인 생명의 처리를, 이러한 여러 가지 담론에도 불구하고 '웰-다잉'이라는 말은 급격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물론 이런 논의 자체가 기본 좋은 것은 아니다. 인생의 종착역인 사망. 이것은 삶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살아온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란 말이다. 마지막 가는 길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신심이 두터운 신앙인이든지 뭔가를 크게 성취한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고편은 입을 맞치면서 모인 가족

들에게 "빛을 더"라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그래서 누워있는 침대를 그대로 프락의 잔디밭으로 밀고 나갔다. 거기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철학자 칸트는 "좋다"라는 말을 남기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떠났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종교인은 아니다.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바 최고의 작가요 철학자였다. 각설하고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웰-다잉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식문화가 개선되어도 건강 연령까지 크게 연장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70대 후반이 넘어가면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보통이다. 거기에다 가족 해체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각종 부정적인 현상도 도출된다. 1인 노인가구도 늘어가고 있다. 때문에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죽음을 가족을 비롯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치루는 경우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부터 노인들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60대 후반부터는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 체크도 자주하면서 고독사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살아온 세월 동안의 삶을 기록하거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불필요한 연장치료 거부도

또한 필요하다. 자살예방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어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2024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에 진입했다. 전라남도는 초고령사회가 된 지 이미 오래다. 현재 노인인구비율이 26.1%다. 그야말로 초스피드다. 이 와중에 발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노인의 자살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실태조사, 2017년)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생활비 문제(27.7%), 본인의 건강문제(27.6%), 부부, 자녀, 친구와의 갈등과 단절(18.6%)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은 여러모로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경제적 상실, 건강의 상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가정 내에서의 역할의 상실, 보람의 상실 등.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잘 갈무리하지 못하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게 된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적절한 웰-다잉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안전습관 실천을 생활화 하자

최근 마스크를 통해 크고 작은 화재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4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생활 속 작

은 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작은 안전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화재 원인은 가스레인지에 물이나 음식을 올려놓고 잠시 밖에 나가서 깜빡해 발생한 경우,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 접속으로 과부하가 일어나 발생한 경우, 난방기구 주변 가연물질에 발화 취약된 경우 등 다양하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집을 나서거나 잠자기 전에 전기, 가스, 난방·전기기구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깜박 잊을 것 같으면 주방이나 출입구 부근에 확인할 목록을 적어 둔다.

우리가 실천한 안전습관은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될 거다.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누군가 기우(杞憂)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여러 번 살피고 생각하는 안전습관을 실천해야겠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음력 2월 20일)

Grid of horoscope entrie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brief daily predictions.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Publication information table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